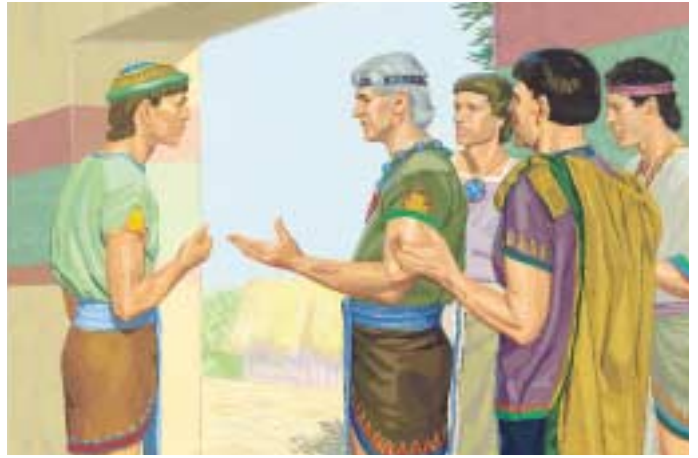




왕당파 대 자유파

제 33 장



일 부 니파이인들은 재판사인 페이호랜에게 그 땅의 법률 중 일부를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.

앨마서 51:2~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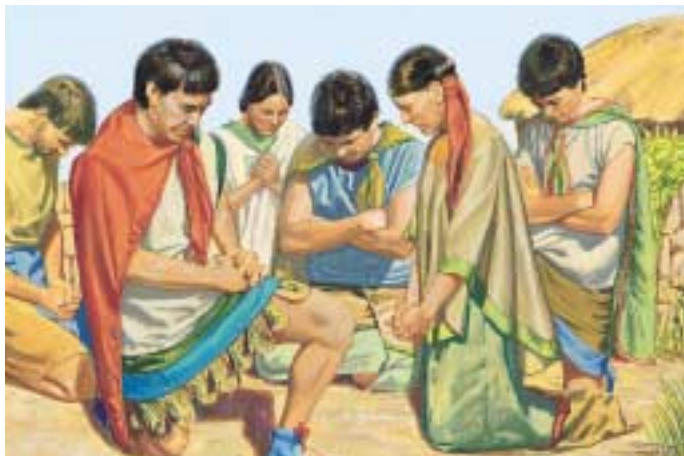
페이호랜이 이를 거부하자 백성들은 노하여 페이호랜을 재판사직에서 쫓아내기를 원했습니다. 백성들이 원한 것은 판사가 아니라 왕이었습니다.

앨마서 51:3~5



왕당파로 불리워진 자들은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기를 바랐습니다.

앨마서 51:5, 8



페이호랜을 재판사직에 머물게 하려고 했던 니파이인들은 자유파라고 불리어졌습니다. 그들은 원하는 대로 생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.

앨마서 51:6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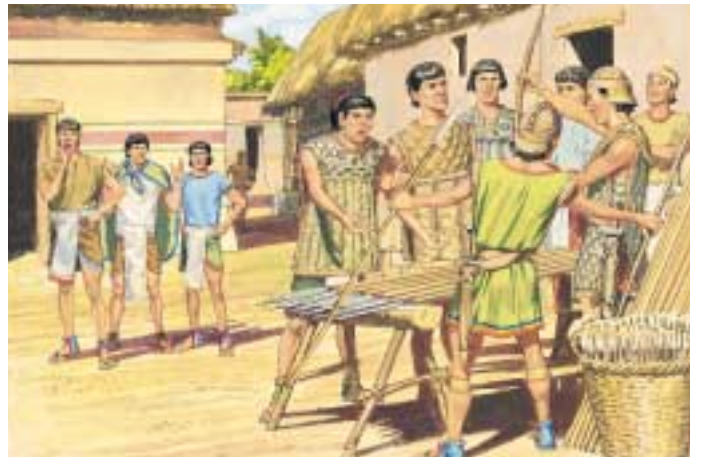
백성들은 왕당파와 자유파를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. 백성들 대부분은 자유파를 지지했습니다.

앨마서 51:7



이와 때를 같이 하여 아멜리카이아는 니파이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많은 레이맨인 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.

앨마서 51:9



왕당파는 레이맨인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하며 나라를 지키려는 일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.

앨마서 51:1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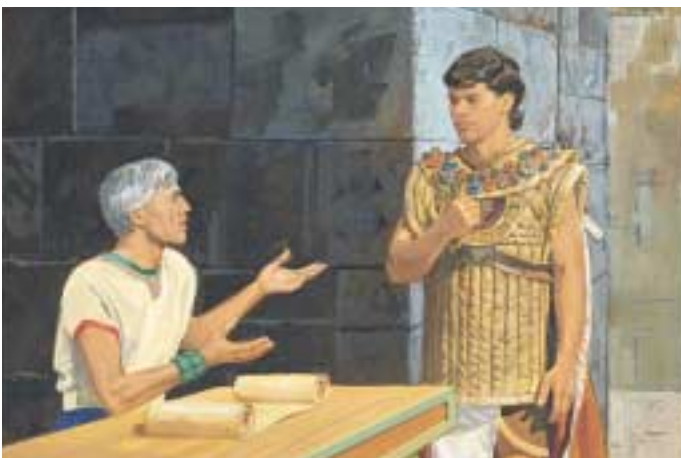
모로나이 대장은 왕당파가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. 그는 니파이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왔었습니다.

앨마서 51:14



모로나이는 통치자에게 왕당파들로 하여금 레이맨인들과 대항하여 싸우게 하든지, 아니면 그들을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

앨마서 51:15



통치자인 페이호랜이 모로나이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자, 모로나이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왕당파와 싸웠습니다.

앨마서 51:16~18



다수의 왕당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. 그들 중에는 감옥에 투옥된 자도 있었습니다. 나머지는 레이맨인들을 상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을 돕기로 맹세했습니다.

앨마서 51:19~20